

76 年의 經濟展과望 貨金

調整에 따르는 問題點

宋 基 澈

<經博·高麗大學校教授>

◆……………編輯者 註: 다음 글은 第2回제인 시멘트業界를 위한 勞使問題세미나에서 發表되었던……………◆
 ◆……………主題로서 우리 나라 經濟의 전반 문제와 한 業界의 展望, 貨金問題 등을 中心으로 다루……………◆
 ◆……………고 있습니다. 第2回 勞使세미나는 60餘名の 業界 任職員들이 參席한 가운데 지난 2月……………◆
 ◆……………16日부터 18日까지 堤川의 明洞호텔 講堂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I. 76 年의 뜻

파라솔 밑의 女人, 멀리서 보는 女人, 밤불 밑에서 보는 女人은 아름답다고 한다. 특히 밤불 밑에서 보는 女人의 아름다움은 特別하다. 아마 밤은 萬物을 모두 아름답게 만드는 「美의 손」인지도 모른다. 울긋불긋 明滅하는 네온 싸인, 各者의 아름다움을 경쟁하듯 비치고 있는 아크릴 간판, 旅愁를 말해주는 듯한 전등으로 둘러싸인 밤의 도시 역시 아름답기 이룰데 없다. 76이란 수자가 들어 있는 어떤 주유소의 아크릴 전광판이 고객을 유혹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 유니온 石油會社의 商標가 바로 이 76이라 한다. 왜 하필 숫자로 商標를 만든 것일까?

76이란 원래 미국에선 吉數라고 한다. 1776년에 미국은 독립을 했다. 독립한 해가 1776년이니 76이 吉數라 한다. 미국은 今年이 건국 200주년이 되는 해로 祝典이 大的으로 전개되리라 하여 우리는 여기에도 景氣回復을 좀 기대하고 있기도 하다.

마침 유니온 石油會社는 이 吉數에다 옥탄價가 제일 높은 것이 76이고 보니 이를 따서 吉數에다 모양도 간결하고 외우기도 쉽고 도안도 쉬우므로 76이란 수를 商標로 만든 모양이다.

76이 美國人에게 吉數라면 우리에게 76이란

수는 뜻이 전혀 없는 숫자일까? 뜻은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이 76이란 수는 뜻이 있는 것이다.

즉 지금부터 2百年前인 1876년에 江華島條約에 의해서 開港한지 100周年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즉 西歐列強과 新興 日本의 資本主義와 접촉하기 시작하여 그 門戶를 개방한지 100周年이 된다는 뜻이다.

세계 정세에 어두우면서, 四色黨爭에만 몰두하면서 實力을 기르지 못한 朝鮮王朝는 他意에 의해서 그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어 35년간에 列強爭奪下에서 右往左往 시간만 浪費해 버리다 신흥 日本의 식민지로 전락함에 이르렀다. 이에 36년의 식민지 시대를 지나 8·15해방을 맞고 이어 30年, 이제 韓國資本主義 100周年을 맞았으나 그 성장은 기구하고도 만신창이의 느낌이 없지 않다.

1876년서 1910년의 35년간은 列強爭奪下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허송 세월했다. 日帝下 35年間은 日本資本主義에 봉사하는 몸으로 전락되어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解放後 30年後, 南北兩斷, 美軍政, 6·25 動亂, 休戰, 4·19, 5·16으로 혼란이 계속되었고 第1次經濟開發 5個年計劃 이후 본격적으로 經濟建設에 박차를 가한지 겨우 10여년에 지나지 않았다.

미국과 같이 건국 200周年을 축하하는 못할 망정 우리는 개항 100周年이 되는 1976년을 맞아

깊은 감회에만 젖을 수만은 없다. 우리도 늦기는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진로를 올바르게 잡아 번영되고 균형잡힌 産業社會를 創造하여야만 한다. 이런 어려운 産業風土 속에서 극히 예외이긴 하지만 잡초와 같은 生命力을 발휘하여 55년의 연령을 쌓은 企業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30年以下の 짧은 연령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8年밖에 되지 않은 企業이 1億 5千萬弗을 수출한 綜合商社로 등장하고 있는 陽地도 없지 않다. 그와 반대로 氷山의 一角일지도 모르지만 朴東明事件, 박영복 사건과 같은 우리의 恥部를 드러낸 陰地도 없지 않다.

이제 우리는 1976이란 뜻 있는 새해를 맞게 되었다. 1976年이 開港 100周年이란 뜻에서 뿐만 아니라 解放 30周年과 국내외적으로 經濟與件이 어려웠던 1975년을 회고 반성하고 第3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의 最終年度를 완결짓고 第4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준비하는 한해로서도 또한 뜻이 있는 해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금 世界經濟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면서 격동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韓國經濟는 世界經濟의 일환으로서 적지 않은 진통을 계속 겪을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전환기를 맞아 우리는 과거를 일신하고 새마음 새뜻으로 經營理念을 올바르게 확립하여야 한다. 그와 아울러 눈과 귀 그리고 모든 五官을 움직여서 국내의 與件變化를 迅速·正確하게 把握·分析·檢討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적용하여야 한다.

76年엔 景氣回復이 제법 될 것이란 樂觀論도 없지 않으나 緩慢한 回復論이 지배적인 것 같으며 非產油開發途上國은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이란 것이 衆論이기도 하다. 다행히 우리는 中東 붐을 타고 있기도 하다. 지나친 기대도 금물이

<表-1> 景氣豫告指標動向

年 月 日 指 標	74/6							75/1								
	74/6	7	8	9	10	11	12	2	3	4	5	6	7	8	9	10
平 點	1.8	1.6	1.4	1.4	1.1	1.1	1.0	2	3	4	5	6	7	8	9	10
	1.0	1.0	1.0	1.1	1.1	1.1	1.2	1.2	1.4	1.5						

<表-2> 主要經濟指標 (11月末 現在)

區 分	指數 또는 金額	比前月末	比前年末
生産指數 (70=100)	295.8	6.1%	20.0%
出荷指數 (70=100)	298.9	7.2%	13.3%
在庫指數 (70=100)	245.1	3.6%	10.9%
國內通貨 (10억 원)	3,829.1	113.5	845.3
通貨量 (")	1,135.7	85.8	190.0
內國稅收 (")	926.1	80.7	626.1
財政收支表 (")	△121.3	△64.3	△121.3
貯蓄性預金 (")	442.3	27.1	442.3
輸出 (百萬弗)	4,807.7	58.0	4,807.7
K F X輸入 (")	5,904.9	397.5	5,004.9
外換保有高 (")	1,442.7	823	393.4
都賣物價指數 (70=100)	247.6	0.5%	17%
全都市消費者物價 (70=100)	21,879	0.2%	25.4%
建築許可面積 (4m ²)	15,991	7.0%	8.5% (比前年同期)

註：生産·出荷·在庫指數 및 建築許可面積은 10月末基準

긴 하지만 「醜惡한 韓國人」 「醜惡한 韓國企業」의 진출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우리의 受容態勢를 잘 갖춘다면 그 나름대로의 妙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여간 1976년을 맞아 우리에게도 76이 吉數가 될 수 있도록 1976년을 跳躍의 한해로 이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 75年の回顧와 76年 展望

75年을 한마디로 말하면 多事多難한 한 해였다고 회고할 수 있다.

<表-1>의 景氣豫告指標動向에서 보듯이 1·4分期(1~3月)에는 1.0이란 바닥을 지속하다가 2·4分期(4~6)엔 0.1이 상승한 1.1을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3·4分期의 7月과 8月엔 계속 0.1이 상승한 1.2를 보이다가 9月엔 0.2 상승한 1.4 그리고 4·4分期인 10月엔 다시 0.1이 상승한 1.5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판단하면 上半期까지 景氣는 바닥을 이루었다가 下半期엔 점차로 회복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75年 11月末 현재의 主要經濟指標를 보면 <表-2>와 같다.

國內景氣가 輸出伸張으로 産業生産이 활기를 되찾기 시작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1.5를 보여 上向性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11월중의 物價動向은 石油類 및 電氣料金の 인상으로 都賣物價上昇率이 前月比 0.5%, 前年末比 17.9% 각각 상승했으며 全都市消費者物價도 前月比 0.2%, 前年末比 25.4%가 올라 물가 압력이 가중되었다.

11월중의 輸出實績은 5억 9천 8백만불로 누계 48억 7백 70만불이다. KFX 輸入 3억 9천 7백 50만불, 누계 50억 4백 90만불로 나타났다. 月中信用狀來到額은 4억 8천 5백 10만불(누계 48억 7천 1백 50만불)에 비해 I/L 發給은 4억 2천 4백 20만불(누계 48억 5천 7백 60만불)에 이르고 外換保有高는 14억 4천 2백 70만불로 되어 있다.

75년의 우리 경제를 요약하면 첫째 전반적 不況이라 할 수 있었다. 특히 上半期엔 1.0에서 1.1을 지속하다 下半期서 점차 회복, 11월에 上向性 안정권에까지 이르렀다.

둘째 物價上昇은 여전하여 11월 현재 都賣物價 17.9%, 消費者物價 25.4%에까지 이르렀다.

세째 輸出目標가 처음으로 미달된 해이다. 國際收支狀況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긴 했으나 문제를 지연시켰을 뿐이지 문제 해결이 근본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

네째로 資金供給이 不均衡的이었으며 資金事情에 상당히 압박을 받았다.

다섯째 기업으로 보아선 업종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縫製, 假髮, 皮革, 일부 經工業은 호황이었으며 重化學部門이 부진하였다는 몇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정부는 「75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회고와 새해 전망」에서 76년도 세계 경제는 國際通貨秩序 및 流動性問題, 保護貿易主義, 原資材需給 및 價格動向 등 여러 면에서 여전히 장해 요인을 안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75년에 비해서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힘입어 우리 나라 경제도 景氣回復局面으로 들어갈 것으로 내다 봤다.

이같은 여건 아래서 76년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資源波動 이래 계속되어

온 物價高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는 일이다. 정부는 76년도 都賣物價上昇率을 10%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總通貨增加率을 20%線으로 유지하고 새해 豫算運營은 財政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도록 財政運營에 신중을 기하고 엄격한 總需要管理를 하는 등 緊縮政策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즉 76年度 우리나라 경제의 당면 과제를 安定基調의 再建 및 適正成長의 유지에 있다고 보고 특히 安定基調回復을 위해서 강력한 緊縮政策을 펴나갈 방침이다.

하여간 76년의 우리 경제, 세계 경제가 지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즉 原油價 10% 인상을 계기로 한 각국의 外貨負擔加重을 포함한 여러 악영향, 保護貿易主義的 경향의 확대와 심화, 國際原資材問題, 국제 인플레 경향하에서도 미국 경제가 약간 호전되고 있기는 하지만 美國 포오드 大統領이 미국의 犧牲下에서 世界景氣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의사도 없다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日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의 難境克服이 近隣窮乏化對策으로 되어 우리 한국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76년의 景氣展望이란 아주 급격한 호전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急下落할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이것도 어떤 突然變異가 없는 한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의 선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하면서 완만하게 호전되는 방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도 많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경제에의 適應態勢가 능동적이고 또한 우리 經濟體質, 예를 든다면 국제적 收支改善, 物價安定 등이 다져져가는 한에 있어서 그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76년에 불기 시작한 中東 봄에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것도 우리가 「醜惡한 韓國人」 「醜惡한 韓國企業」의 진출을 억제하는 우리의 受容態勢에 따라 우리에게 주는 강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76年度の經濟基本施策

정부는 76年の施政基本目標로 ① 國家安保第一主義 ② 安定과 착실한 經濟成長 ③ 國民總和體制強化에 두고 있다.

정부는 국제 경제가 76년에 호전될 것으로 보고 GNP 成長率로 4~5%, 交易量도 5%의 成長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여건을 감안하여 經濟施策의 기본 방향은 ① 物價安定 ② 國際收支改善 ③ 技能人力開發 ④ 國內貯蓄增大 ⑤ 착실한 성장에 두고 있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선 都賣物價 10% 이내, 消費者物價 12% 내외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서 總需要의 관리(通貨增加率 20% 수준 유지, 貯蓄性預金 31.4% 증가 등), 물가 안정의 강화(物價安定法の 실시 流通構造改善 등)를 한다고 한다.

國際收支改善을 위해 수출은 65億弗, 수입은 74億弗로 잡고 있으며 經常收支赤字를 14億弗로 잡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출의 증대(수출 기반 확충, 用役輸出의 확대 등), 수입의 절약(수입 수요의 체계적 국산 대체의 촉진, 國內賦存資源의 개발 확대 등), 長期低利借款의 확보(기초 수지의 균형 등), 건설한 外資管理(短期借入의 축소 등) 등이다.

技能人力의 개발을 위해선 技能人力을 13萬名 양성토록 한다. 이를 위해서 技能人力 공급의 확대(직업, 훈련의 강화 등), 중동 지역의 人力進出支援(建築技能者養成 등), 技能人力養成體制的 개선, 技能人力養成行政의 一元化, 國家技能資格의 公信力提高 등이다. 저축의 증대는 저축고 18.6% 및 투자에 대한 국내 저축의 비율을 75年の 58.2%에서 71.4% 提高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民間貯蓄의 증대(財産形成貯蓄制의 확대 등), 政府貯蓄의 증대, 金融貯蓄의 증대(1兆원), 소비 생활의 건전화와 물자 절약 운동의 추진(도시와 농촌의 새마을운동 확대) 등으로 되어 있다.

착실한 성장을 위해선 目標成長率 7~8%, 産業別成長率로는 農水産業 4%, 鑛工業 12%, 社會間接資本 및 기타 서어비스業 4.8%, 人口增加

率 1.6%, 1人當 GNP 531弗을 611弗로 끌어 올린다고 한다.

IV. 賃金調整

매년 이 맘때가 되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 하나가 임금 문제이지만 今年과 같이 임금 문제에 관해서 百家爭鳴의 현상도 드문 듯하다.

정부에서는 朴大統領이 근로자들의 처우와 환경의 개선에 최대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平均賃金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처우를 平均水準으로 올리도록 강력히 지도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製造業分野의 임금이 1萬원까지의 低賃金水準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지적하면서 最低賃金制度를 법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현상황에서는 아직 一律的으로 임금 수준을 묶을 수 없고 기업가들이 또 이를 이용하여 임금을 올리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기업가들은 지금까지 썩 임금으로 국제 경쟁에 견딜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차츰 이를 버릴때가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鑛夫들의 處遇問題에 관심을 보이고 연탄값을 올리더라도 鑛夫들에게 人道的 立場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特別手當을 주어야 될 것으로 지시했다. 그리고 勞動爭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가 開發途上國이며 國家安保의 견지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무시한 것이 아닌데 이를 미끼로 근로자의 처우를 기업가가 소홀히 해서 는 아니될 것이며 또 근로자도 이 정신을 이해하여 지나친 쟁의를 하지 않는 등 自制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임금의 基本調整 立場은 國際競爭力強化, 雇傭增大, 低賃金の 일소, 賃金隔差의 조정, 一律引上 배제, 특종직의 처우 개선, 特別수당의 증액, 보너스의 조정 그리고 年功加俸制의 고려 등이 기본 방향인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 인상을 에워싸고 經營者協會에서는 23~24%의 임금 인상을 적정선으로 조지했다. 經營者協會는 75年度 물가 상승률을 임금 인상에 반영한다는 종래의 방식에서 76년도의 예상 물가 상승률과 예상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자는 새로운

賃金調整方案을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난 해의 물가 상승률(25%)과 금년도 예상률(12%)의 절반인 18.5%, 今年度 경제 성장률 8%를 소비자, 근로자, 기업이三者共分한 2.5%, 정기 승급률 2%를 내세워 23%가 賃金引上的 한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하여간 이것은 과거 지향형에서 미래 지향형이란 특성으로서 물가 상승을 보상해 주기는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물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것은 12% 물가 안정선이 지켜질 것이며 임금 인상이 物價上昇要因, 國際競爭力弱化的 요인이 되어선 아니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勞總은 지난 해의 물가 상승률 25.4%와 賃金損失分 13%를 합친 38.4%에 勞動生産性向上分 13.5%와 GNP 성장률 7.4%의 절반인 10.45%를 가산한 48.85%를 적정선으로 내세웠다.

生産性本部가 물가, 임금, 생산성과 관련시켜 제시한 賃金決定方式을 보면

賃金總額引上率 = $\frac{1}{2} \times (\text{過年度消費者物價上昇率} + \text{今年度物價上昇率豫想目標}) + 1\% \times (\text{過年度賣出總額增加率} / \text{過年度同業種成長率} + \text{過年度勞動生産性向上率} / \text{過年度同業種勞動生産性向上率} + \text{過年度經營利潤率} / \text{過年度同業種經營利潤})$ 과 같다. 그리고 KPC가 발표한 今年度 賃金引上豫測調査에 따르면 18.7%~23.2%로 되어 있다고 한다.

V. 問題點과 그 方向

1. 76年의 景氣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인가?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 볼 때에 경기는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 <表-3>의 景氣豫告指標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75年 4.4分期서부터 好況局面에 접어든 느낌이 없지 않다.

<表-3>

景氣豫告指標

年 月	74/7	8	9	10	11	12	75/1	2	3	4	5	6	7	8	9	10	11	12
指 標	1.8	1.6	1.4	1.1	1.1	1.0	1.0	1.0	1.0	1.1	1.1	1.1	1.2	1.2	1.4	1.5	1.6	1.7

그러나 현재의 선에서 약간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하면서 원만히 상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景氣上向은 세계 경기의 회복에 따르는 輸出好調와 中東 붐, 각국의 在庫減少에 따른 보충 등 여러 요인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경기 회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요인이 아직도 많이 있음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保護貿易主義的 傾向의 심화와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2. 經濟成長에 따르는 애로와 當面課題는 무엇인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선 우선 해외 시장의 확대와 심화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의 확대 심화 역시 문제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금 즉 國內貯蓄增大와 外資 즉 國際的 收支問題가 큰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경쟁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편성과 技術人力의 開發을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의 능숙한 경제 계획의 수립과 수행, 企業의 강진한 기업 체질과 경영자의 活力이 요청되며 국민들의 협조 자세도 요청된다.

3. 76年 勞組側의 50%와 使用者側의 20% 賃金引上은 너무나 간격이 크다고 보는 見解는 어떤가?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30~20%선의 賃金引上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 선의 上下로 약간의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되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생각엔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정부의 賃金政策, 기업의 支給能力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견해이다.

문제는 一律적으로 몇 %가 아니고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低賃金地帶를 끌어 올리는 일 그리고 계층간, 직종간, 지역간, 업종간, 규모간,

성별간 등 임금상의 격차를 合理的으로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4. 年功加俸制 임금제는 企業體에서도 적극 장려할 것인가?

우리 경영학에서는 職務給을 바람직한 方向으로 제시해 왔다. 아마 이 원칙은 今後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年功加俸制가 全的으로 경시되어야 할 제도도 아니다. 왜냐하면 정착을 위해서 도움을 주어 社會的으로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 수반해서 단점도 많은 것이니 賃金總額의 계속적 증액, 젊은 층의 불만 등 여러 요인이 있다.

우리의 여러 현실로 보아 年功과 직무를 가미한 二元制의 체제가 當分間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지급 능력 여하에 따라서 年功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5. 所望스러운 賃金調整과 企業運營의 合理化는?

나는 今後 임금에 있어서 매년 몇 % 인상이

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物價引上과 直·間接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도로아미타불式 몇 % 引上에 앞서 物價安定에 서로 기여하는 式의 賃金調整方式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역시 정부, 기업 그 자체, 주주, 근로자, 소비자의 共同分擔方式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안다.

그리고 저임금 수준을 끌어 올리는데 力點을 두어야 하며 임금 격차 축소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今年에 있을 稅制改革에 있어 控除項目과 除控額을 어떻게 向上시키고 세율을 引下시켜 實質所得增大에 도움을 줄 수 있는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財産形成政策에 의해서 업주가 임의적으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것 역시 今後 임금 가급을 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今後 賃金調整時에 한 고려 요소로 검토되기도 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으로 볼 때엔 人力管理를 이해야 말로 本格化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저임금, 저능률이 아니고 고임금 고능률의 時代가 왔으니만큼 소수 精銳主義로 기업 경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